



준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buddhapia.com



김어수 법사 탄생 100주년

“자기 수양을 위해 입산이 필요한 것처럼,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하산도 필요하다.”

현대의 대표적인 시조시인이자 조계종 첫 중앙상임포교사였던 영담(影潭) 김어수(金魚水, 1909~1985) 법사. 석주 스님과 함께 공부한 비구승이었다가 출가 25년만에 환속하면서 밝힌 하산의 법이다. 이후 국어교사와 교장, 한국현대시조시인협회 초대회장을 지낸 후 입적 직전까지 포교사로 법을 전했던 그가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사후 25년이 지난 지금, 그를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다. 오히려 그의 고향인 영월군에서 시비(詩碑)를 건립하는 등 선양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와 문단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사이 증동면 작동리 주민들의 뜻과 군의 예산지원으로 설립된 시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단풍산 계곡축제에서 제막식을 가진 김어수 시조시인의 시비가 잘못 제작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법사의 제자인 상육 스님(불암사)과 한국시조시인협회(이사장 한분순) 등이 “시조의 형식(율격)을 살리지 못한 채 내용이 새겨져 선생의 작품과 시정신이 왜곡됐다”며 재제작과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김어수 선양사업회는 올해 가을 쭉 추진하는 ‘김어수 100주년 기념사업’에 문학원비를 세우면서 기존의 시비를 치우고 시비를 다시 건립할 계획이다. 주민들도 불교계나 선양사업회 등에서 시비를 다시 제작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기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 법사의 사진과 시집, 자필원고 등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육 스님은 “김어수 선생의 작품과 삶이 문학사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향사람들의 무지와 소홀한 행적으로 선생의 참뜻이 왜곡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선생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불교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만해 스님과 함께 대불청의 기초를 다지고 1세대 포교사로 전범의 큰 공을 세운 김어수 법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공덕을 기억하는 조계종 포교원과 대불청, 중앙신도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시급히 김 법사 선양사업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불교계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벌이지 못한다면,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선양사업을 자문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東大 새 이사장 정련 스님

상임이사에 성관 스님 선출... 영배 스님 사퇴

동국대 새 이사장에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이 선임됐다. 공석이던 상임이사에는 성관 스님(수원사 주지)이 선출됐다.

동국대 이사회는 6월 3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45차 이사회의를 열고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13명 이사 중 정련 스님(월정사 주지)을 제외한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선출 직후 정련 스님은 “학교 발전은 이사회의 원만한 운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사회를 비롯한 종도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일을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배 스님은 “6월 30일자로 모두 물러난다. 9년간 부족한 저를 돕고 격려해 준 임원에 감사하다”며 “(동국대) 이사장은 혼자서는 힘든 자리다. 모두가 힘을 모아 100년 사학 동국의 발전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학생·교수 만족하는 학교 만들겠다”



동국대 제36대 이사장 정련 스님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소통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소통으로 화합된 이사회를 통해 동국대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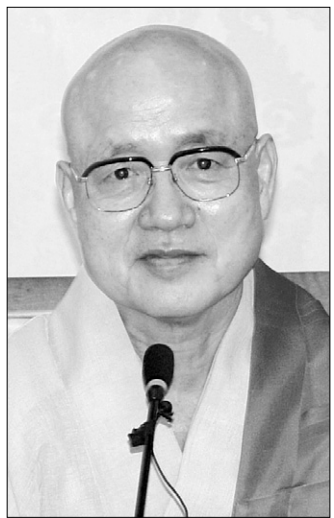
6월 30일 동국대 제245차 이사회 의에서 새 이사장에 선출된 정련 스님(사진)은 이사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100년이 넘는 종립대학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이 영광이지만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그 무게를 절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련 스님은 “동국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종도와 학교구성원들의 열의를 높이 받들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이사회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학교발전은 이사회가 원만히 운영되는 데서 시작된다. 법인이 안정돼야 대학도 안정될 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안정된다”며 “위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했다.

정련 스님의 논리는 갈등과 발전 저해의 원인을 남이 아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찾겠다는 말로, 그동안 동국대 이사회를 비롯한 교계 지도부가 화합하지 못해 지탄 받았던데 대한 반성으로도 해석된다. 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불교적 실천으로도 보인다.

정련 스님이 학교 운영과 관련해 주목하는 부분은 학생의 면학분위기와 교수의 연구분위기 조성이다. 스님은 “학생과 교수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 동국대가 명문사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종단 권력이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으로 대립했던 구도에 대해서도 스님은 ‘화합’과 ‘상생’을 기조로 변화시킬 뜻을 내비쳤다.

스님은 “종단 내 원로대덕스님들 가운데에는 동국대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며 “총무원과 잘 협력해서 종단문제에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등 종단과 학교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정련 스님은 1956년 석암 스님을 은사로 부산 선암사에서 출가했다. 1958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장,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법인 내원,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등을 설립한 스님은 1997년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2002년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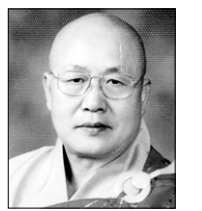
원로의원 무공·선관위장 일운 스님

태고종 총무기관 및 총무원 인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은 7월 1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공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대하는 등 종단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원로의원 무공 스님은 해인사 대교과와 영남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삼각사, 무량사를 창건했다. 서울강북경찰서 경승실장, 한국 불교태고학회 창립회장, 태고종 중앙포교원장, (사)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태고원용회 창립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이날 인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일운 스님, 정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 호명 스님, 정책예경위원회 상허·상명·상진 스님, 총무원 호법 부장에 완월 스님, 호법교장에 혜성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무공 스님.

김성우 기자



군종특별교구 42기 신임군승 고불식 봉행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민)는 6월 26일 제3사관학교 충성호국사에서 신임군승 42기 20명의 임관·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구장 일민 스님 외 수석사 주지 운산 스님 등 은사 스님, 신임군승들이 함께 했다. 이어 신임군승들은 29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신고식을 올렸다. 지관 스님은 “그동안 어려운 훈련을 이겨내느라 고생이 많았다. 가행정진으로 맑은 바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지관 스님 봉암사에서 대중공양

종립 특별선원 수좌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6월 30일 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를 찾아 대중공양을 올리고 안거중인 스님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스님은 대중공양 후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과 주지 원타스

님과 함께 경배를 둘러본 뒤 환담을 나눴다.

현재 봉암사 태고선원(太古禪院)과 성적당(惺寂堂) 등에는 80여 수좌 스님들이 정진 중이며, 조계종에는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2200여 스님들이 하안거 중이다.

조동섭 기자

8개 본사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개최

전국 8개 본사 스님과 신도, 포교사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충)은 7월 12일 충북 보은 종합운동장에서 ‘제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각 사찰 및 신도 단체의 축구팀과 대회는 중중 있었지만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는 이번이 처음

이다.

축구대회는 제2교구 용주사, 제3교구 신통사, 제4교구 월정사, 제7교구 수덕사, 제9교구 통화사, 제8교구 직지사, 제19교구 화엄사, 제25교구 봉선사에서 참가한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결승전에 앞서 가수 김홍국씨가 소속하고 있는 연예인 축구단의 시범경기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종단과 소통에 최선 다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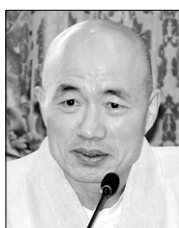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

“화합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종단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사진)은 “화합을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며 “전임 이사장스님이 일궈온 업적을 잇고 새 이사장스님

을 잘 보필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총무원장스님과 종단의 대덕스님들을 자주 찾아 뵙고 학교 발전에 대한 종단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임 상임이사 성관 스님은 1972



년 화성 용주사에서 정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부산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사 주지, 로터스월드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제37기 서울·경기 등 본사 행자교육

조계종 교육원 실시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법장은 6월 22~26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제37기 서울·경기·강원권 역 본사 행자교육을 실시했다.

행자교육원 임교 전 사전 습의점 검을 위해 열린 이번 행자교육에는 남행자 40명, 여행자 20명이 참석했다.

다.

법장 스님은 입제사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행자교육원에서 결연한 출가정신을 확립하고 확고한 수행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밑바탕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원은 9월 5~27일 김천 직지사서 제37기 행자교육원을 개원한다. 조동섭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부터 ~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개 강 : 2009년 9월 7일 월요일
- ◇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 ◇ 출가수행, 사미,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평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평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 강의내용 : 사물타는 법 등 기초교육
- ◇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 ◇ 개 강 : 2009년 9월 7일 목요일